

# 완성차업계, 전동화 전략 재정립... 투자 확대 vs 속도 조절

〈현대차·BMW〉

〈테슬라·폭스바겐·포드〉

전기차 수요 둔화... 대응책 마련

**현대차그룹** SDV 등 대규모 투자  
**테슬라** 전 세계 인력 10% 감원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위기 대응에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테슬라를 비롯해 폭스바겐, 포드 등은 인력 구조조정과 전략 변경을 통한 변화에 집중하는 반면 현대자동차그룹과 BMW 등은 신차 출시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전세계 인력 10% 감원을 선택했다.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 돌파로 조직 슬림화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말 기준 전 세계 직원 수가 14만명이라는 점에서 전체 직원의 10%인 1만4000명 가량 감원 대상이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판매량은 4년 만에 역성장한 38만6810대를 기록했다. 이



현대차 울산 EV전용공장 기공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는 정인석 회장

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이 수요 둔화의 여파로 성장세가 꺾이면서 포드와 폭스바겐 등도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애초 계획한 전기차 투자 가운데 120억달러(약 16조 원)의 지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5일 캐나다 오크빌 공장의 스포츠유

틸리티차(SUV) 전동화 모델 양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존 롤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중"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세계 2위 판매량을 기록한 폭스바겐은 2026년 독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 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반면 현대차그룹과 BMW 등은 대규모 투자와 신차 출시를 통해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6년까지 68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채용은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차(SDV)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한다. 전체 채용 규모의 55%에 달하는 4만 4000명이 전동화, SDV, 탄소중립 실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프로젝트 등 신사업 분야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2030년까지 EV 제품군을 31종으로 늘리고,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151만대(수출 92만대)로 확대해 간다. 기아는 올해 소형 전기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SUV)과 준중형급 세단형 전기차 EV4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전동화 시장이 대중화 시대로 진입하며 일시적 수요 둔화

를 겪고 있지만, 미래에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며 "올해 볼륨 모델인 EV3를 신규 출시해 전기차 대중화를 이끌어 EV 톱 티어 브랜드가 되겠다"고 말했다.

BMW 그룹은 전동화 기술과 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설비투자(CAPEX)의 경우 독일 뮌헨 공장을 확장하고 MINI 옥스포드 공장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 헝가리 데브레첸에 자동차 생산 공장도 건설한다. 중국 선양, 미국 우드러프, 멕시코 산루이스포토시, 독일 니더바이에른 현에는 각각 고전압 배터리 조립시설을 구축한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등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전략 변화는 전체 시장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높은 차량 가격과 고금리 등의 요소가 차츰 해결되면서 판매량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차이나플러스 2024' D-1

# LG화학, 친환경·고부가 제품 대거 전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 테마  
"글로벌 고객의 마음 사로잡을 것"

LG화학이 친환경·고부가 전략제품으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4(Chinaplas 2024)'에 참가해 바이오, 재활용, 씩는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와 자동차·생활 분야의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차이나플러스 2024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 전시회로 38만㎡가 넘는 전시 면적을 제공하고 전세계 4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G화학은 국내 기업 중 최대 규모인 400㎡(121평) 부스에 60여 종이 넘는 제품을 전시하고



'차이나플러스 2024' LG화학 부스 조감도

/LG화학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9개의 전용 회의실과 비즈니스 라운지를 운영한다.

LG화학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제품(The sustainable and innovative solutions)'을 테마로 친환경 제품과 고부가 전략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친환경 제품은 전체의 40%

이상으로 구성됐다.

LG화학노극래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끊임없이 혁신하는 LG화학의 친환경 고부가 전략제품으로 글로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라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SK지오센트릭, EAA 등 차세대 화학제품·기술력 뽐낸다

(에틸렌 아크릴산)

기술 세미나 개최 예정

SK지오센트릭이 세계 3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인 차이나플러스(Chinaplas)에 참가해 고부가 화학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인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NECC)에서 열리는 '차이나플러스 2024'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행사에서 SK지오센트릭은 에틸렌 아크릴산(EAA)을 비롯해 아이오노머(I/O), 경량화 소재 등 고부가 미래 화학제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SK지오센트릭은 차세대 화학제품 전시로 글로벌 고객들을 맞는

다. 340㎡ 규모 전시부스는 ▲접착&밀봉 솔루션(Tie&Sealing Solution)·신기술에너지솔루션(New Energy Solution) ▲라이프스타일솔루션(Lifestyle Solution) ▲어드밴스드 솔루션(Advanced Solution) 등 3개 주제로 각기 섹터를 마련했다.

접착&밀봉 솔루션과 신기술에너지솔루션 섹터는 EAA, 아이오노머를 핵심 제품으로 소개한다. EAA는 포장재용으로 주로 쓰이는 고부가 화학제품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성이 높아 글로벌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지오센트릭은 지난 2017년 미국과 스페인의 EAA 공장을 인수했

고, 중국에 3번째 EAA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또한 신기술에너지 솔루션 섹터에서는 물성이 우수해 태양광 발전 패널 등에 사용되는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를 선보였다.

SK지오센트릭은 고객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 세미나도 개최한다. 70여개 고객사와 기관 등을 대상으로 SK지오센트릭의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소개한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올해 차이나플러스는 SK지오센트릭의 고부가 제품 경쟁력을 글로벌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 한화오션, '무인 잠수정·수상정' 만든다

해군 개념설계 사업 수주

있다.

한화오션이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개발에 나선다.

한화오션은 대한민국 해군이 발주한 '정찰용 무인 잠수정 및 기뢰전 무인 수상정 개념설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화시스템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계열사간 시너지가 발휘됐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시 고스트(Navy Sea GHOST)'를 향한 첫 걸음이다.

네이비 시 고스트는 수상·수중·공중 등 전 영역에서 초연결·초지능을 기반으로 유·무인 전력을 통합 운용해 작전·임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말한다. 해군은 현재 '국방혁신4.0'과 연계해 해양 전투력 우위 확보를 위한 해양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이번에 개념설계에 들어가는 '정찰용 무인 잠수정'은 미래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게 된다. 작전 지역에 은밀하게 접근하여 지속적인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전력화가 이뤄지면 함께 기동하는 모함(母艦)의 해상 정찰업무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 '기뢰전 무인 수상정'도 다양한 목적을 수행하게 될 무인 함정이다. 평시에는 정보 수집과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시에는 기뢰 탐색 및 해체(소해)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함정의 안전한 출몰항로를 확보하는 첨병 역할도 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인구 감소 문제는 결국 군 병력의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한화오션은 무인 무기체계 기술로 흔들림 없는 국방력 유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중진공, 中 炭소중립 인프라 지원 강화

HD한국조선해양·동서발전 MOU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HD한국조선해양, 한국동서발전과 손잡고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선다.

중진공은 지난 18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강성진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과 '조선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공동 협력사업'은 HD한국조선해양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참여기관별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는 협업 사업이다.



지난 18일 경기 성남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부터)강성진 중진공 이사장,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조선 산업분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최종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김승호 기자 bada@